공모전 계획	제목	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제언: 취약계층 폭염 대응 인프라 최적 입지 분석
	추진배경 및 필요성	<ul> <li>○ 기후변화 심화</li> <li>- 최근 여름은 폭염, 스콜성 강우, 계절의 양극화(여름·겨울만 남는 이계절화)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음.</li> <li>- 2025년 상반기 온열질환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증가(4명 → 11명, 질병관리청 통계).</li> <li>○ 시민 생활 위협</li> <li>- 폭염으로 기존 공원·하천 산책로가 사실상 '무용지물'이 되면서, 야외 활동이 필수적인 노인과 어린이가 건강·안전을 위협받고 있음.</li> <li>- 특히 노인은 건강을 위해 꾸준한 걷기가 필요하지만 폭염에 취약, 어린이는 안전한 놀이공간 부족으로 삶의 질 저하.</li> </ul>
	분석내용 (투입데이터)	<ul> <li>○ 노약자 인구 분석</li> <li>- 서울시 청소년교육복지시설 공간데이터</li> <li>- 서울시 노인복지시설 공간데이터</li> <li>- 서울시 학교(유치원, 초중고교) 공간데이터</li> <li>- 서울시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통계</li> <li>- 서울시 내국인 KT생활이동 데이터</li> <li>○ 생활패턴 분석</li> <li>- 서울시 행정동별 내국인 KT 생활이동 데이터</li> <li>- 서울시민 라이프스타일 재현 데이터</li> <li>-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</li> <li>○ 생활안전 분석</li> <li>- 서울시 CCTV 현황 공간데이터</li> </ul>
	활용방안 및 기대효과	○ 정책 활용 - 서울시 '폭염 대응 정책'의 과학적 근거로 활용 취약계층 밀집지역 중심으로 지하 산책로·지하 연결망 조성 우선순위 제시 기존 지하상가, 지하철 연결통로와 연계해 효율적 공간 재활용 가능. ○시민 생활 효과 - 노인과 아동의 안전한 보행·여가 생활 보장 열사병·온열질환 예방 및 응급 상황 감소 돌봄 인프라(학교, 요양원, 복지관 등)와 연결 시 효과 극대화. ○사업성·확장성 - 민간 부문(편의점, 카페, 공공시설)과 협력해 지하 산책로 내 쉼터·편의 인프라 조성 가능 향후 폭염·재난 대응형 스마트 인프라(센서·loT 연동)로 확장.